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속으로



이흥재
주필

4선 단체장 누가 되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4선 단체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려 5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이 있다. 경기도 군포 시장 김윤주(68) 씨가 그 주인공이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민선 2기·3기 당선, 4기 낙선 후 5기·6기 연거푸 재선에 성공하면서 4선 변역에 올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선수'(選數)를 보유한 단체장인 셈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 그는 얼마 전 국민의당으로 갈아탄 후 이번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5선에 도전한다. 중간에 한차례 낙선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번 지방선거까지 5선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3선 군수 지낸 김종식 전 부시장 목포에서 신화 꿈꿔 민주당 후보 늘 고전했던 순천에서 조충훈 시장도 담양 최형식 군수 역시 한 차례 선거 건너뛰어 도전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4선에 도전하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 먼저 최형식(63) 현 담양군수를 들 수 있겠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연거푸 4선을 못하지만, 최 군수처럼 한차례 선거를 건너뛰면 출마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 군수에 당선됐으나 2006년 재선에 실패했다. 이후 민선 5기·6기 군수로 당선돼 세 번째 군정을 이끌고 있다.

최 군수에 맞서 민주당 내에서는 박준조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장과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공천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다. 전남도의원 중 가장 먼저 군수 선거 출마 선언을 했던 박철홍 의원은 최근 뜻을 접고 다시 도의원 선거로 유턴했다.

조충훈(65) 순천 시장도 이번 선거에서 4선을 노린다. 조 시장은 2002년 처음으로 당선됐으나 중도 하차한 후 2012년 4월 보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당선됐었다. 이번에 또다시 당선된다면 역시 전체적으로 '4선'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조 시장은 이번에 민주당 간판으로 도전한다.

다.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던 그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순천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다른 지역과 달리 각종 선거 때마다 다른 당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찌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후보가 최근 10년 동안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시장은 물론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역이 바로 순천이기 때문이다.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종식(68) 전 광주광역시 부시장의 4선 여부도 관심이 갈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기초단체장 3선에 성공한 뒤 임기를 마치고 광역 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는 종종 보아 왔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에서 다시 기초단체장으로 옮겨 타는 경우도 없었다.

그가 주목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데 그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3·4·5기 완도군수를 지낸 바 있다. 3선으로 연임 제한에 걸린 그는 광주 부시장을 끝으로 이번에 지역을 달리해 기초단체장 4선의 기록에 도전한다.

(현행법상 동일 지역이 아니면 4선 이상 연임도 가능하다)

목포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나선 평화당의 박홍을 시장 등에 맞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종식 전 광주 부시장이 이번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초단체장에서 다른 지역 기초단체장으로 옮겨 4선에 성공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실험'이라 할 만하다.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초빙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미국 메릴린치 증권회사에서 수석 부사장으로 활동하던 이이우키 씨는 일본 시마네현의 작은 해안 도시인 이즈모시 시민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시장에 당선되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재직하면서 지방도시 변혁의 신화를 창조한 인물이다.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는 1995년 처음 실시돼 이제 그 성년을 넘겼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능력은 해당 자치단체를 변화·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민선 지방자치 20여 년, 우리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4선 단체장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그 첫 주자는 누가 될까?

6·13 선거 현장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김명진 “출마자들 김기식 사퇴 입장 밝혀야”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위유성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다”며 “대통령의 핫라인, 복심을 주장하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김 원장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권의 출마자들이 고조되고 있는 김 원장 사퇴 민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당선된 이후 어떻게 민심을 전달하는 정치인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김 원장의 행위를 용납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소상공인 내몰림 방지법 제출할 것”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으로 타지에서 내몰리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내몰림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들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빈번한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5년인 계약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인의 강제집행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자영업자”라면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중기·소상공인 보호 공약 발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의원 당선 후 실행할 공약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맹·유통·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하도급·가맹·유통·분야의 ‘경제적 울’을 위한 많은 입법과제가 남아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울의 보호는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

최영태,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최영태(64·전남대 교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는 15일 남구 월산동 기흥빌딩 3층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개소식에 앞서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선행 지수인데 광주교육이 방향을 잃고 있다”며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 돼야 하고, 공부를 잘 가르쳐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야 함에도 광주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민주, 김기식 의혹 제기에 “악의적 흠집내기” 일축

한국당, 후원금 모금·정치자금 사용처 등 심사포화

야당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파상공세가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엄호의 강도를 높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김 원장의 ‘갑질 의혹’ 논란을 의혹 제기의 중심에 뒀지만, 이제는 후원금 모금과 정치자금 사용처, 해외 출장 중 유명 관광지에 일정 이르기까지 의원 시절의 정황을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사퇴를 압박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야당 인사가 이 정도였으면 벌써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통보를 하고, 모든 언론은 한국당이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두들겨 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들의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언급한 뒤 “당시 더좋은미래 사무실은 의원회관 902호고, 김 원장의 당시 사무실도 의원회관 902호였다”며 “19대 국

회 당시 의원회관 902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일축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축하고 나섰다.

김 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 겨루기가 갈수록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김 원장이 속해 있던 단체이자 여권 핵심 인사들이 고루 포진한 더좋은미래가 최전선에 뛰어든 듯한 모습이 다.

남인순·유은혜·홍익표·진선미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10여 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서는 야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유 의원은 “야당이 공세를 퍼며 꺼내든 주장 가운데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 역시 “(‘여비서’를 강조하는 것은)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가장 악랄한 공세’라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여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김 원장의 의원 시절 후원금 등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자신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생활자치 실현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광주시가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해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을 11일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난 3월 공모로 선정된 ‘2018년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발전 방향과 우수사례, 주민자치 성공을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또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계획, 커뮤니티 공간 구성, 자치사무 수행에 대해 동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5개 동의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을 위해

주민자치 전문가들로 동별 1:1 담임제를 구성, 현장컨설팅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만큼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등으로 TF를 구성,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

델을 개발하고 2016년 6월부터 5개동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올해 3월 선정된 5개 동을 추가, 총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거점으로 조직 최상위에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 의견을 토대로 마을발전 계획 수립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마을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신문 발간 등 주민자치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윤형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